

“생각하는 로봇, 명상하는 인간”

국립중앙과학관 광복절 연휴 맞아 특별전 <생각 중>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상 과학연구소 이야기 마당(토크콘서트) <명상 중> 개최
-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전시해설 프로그램 <로봇도 생각 중?> 운영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은영)은 특별전 <생각 중 Thinking or Calculating>과 연계한 강연 및 해설 프로그램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전 <생각 중>(전시 기간 : 7.14~10.18.)은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을 비롯해 뇌 과학과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정체를 과학,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탐구하는 전시이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전시에서 다룬 질문을 각각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명상'이라는 핵심어(키워드)로 확장해, 관람객이 생각이라는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먼저 8월 13일(목) 오후 2시에는 창의 나래관 나래홀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상 과학연구소 김완두 소장이 진행하는 이야기 마당(토크콘서트) <명상 중>이 열려 현대 사회에서 생각을 대하는 태도를 짚어보고, 관람객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관찰해보는 명상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없고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8월 10일 공개<오픈>)하거나 잔여 좌석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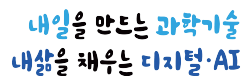
이어 8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은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특별전 해설 프로그램인 <로봇도 생각 중?>이 진행된다. 아이엘로봇틱스(IL ROBOTICS)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문 해설사(도슨트)로 나서 뇌파,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에 이르는 전시 내용을 설명하며, 관람객과 함께 '생각'이라는 전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회당 최대 15명, 20분 내외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8월 10일 공개 <오픈>)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이은영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 <생각 중> 연계 프로그램은 전시에서 던진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강연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몸으로 확장해 보는 자리"라며 "전시와 함께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 및 통합예약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포스터 1부. 끝.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 운영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석형 (042-601-7981)
		담당자	연구사	진현서 (042-601-7936)





특별전 연계 KAIST 명상과학연구소 토크콘서트 <명상 중>



특별전 연계 전시해설 프로그램 <로봇도 생각 중?>